

여대생의 성형수술 경험 및 성형수술 만족 여부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의 차이

손 은 정[†]

계명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 309명을 대상으로 성형수술 경험 및 성형수술 만족 여부에 따른 심리 사회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성격적 차원(자아존중감, 완벽주의), 사회문화적 차원(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비교), 경험적 차원(신체적 놀림을 당한 경험에 대한 지각), 그리고 신체상 차원(신체감시, 신체불만족)에서 각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성형수술 만족 여부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완벽주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완벽주의·자아존중감 순으로 두 집단 간의 차이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수술 경험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성형수술 경험 여부와 성형수술 만족 여부에 따라 성형수술 의도와 심리사회적 특성 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신체적 놀림을 당한 경험에 대한 지각과 성형의도 간의 관계, 그리고 신체감시와 성형의도 간의 관계에서 성형수술을 경험한 집단과 성형수술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 놀림을 당한 경험에 대한 지각과 성형의도 간의 관계에서 성형수술 만족 집단과 불만족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가 제시하는 함의와 제한점, 그리고 추후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성형수술, 완벽주의, 자아존중감, 신체불만족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손은정,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심리학과,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000
E-mail: ejsohn@kmu.ac.kr

최근 우리나라는 외모 지상주의 문화가 팽배해 있다.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은 남성들 보다는 여성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여성들의 경우 외모에 대한 평가에 따라 자신의 매력의 정도나 능력에 대해 인정받는 경향이 남성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임인숙, 2004; Fredrickson & Rogerts, 1997). 실제로 성인 여성들 중 70%가 외모로 인해 직장에서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엄현진, 2007), 직장 여성들의 경우에는 심지어 89.8%가 성형수술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연합뉴스, 2006).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들의 70~90%가 성형수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성형수술을 경험한 비율은 26~27%로 나타나고 있다(손은정, 2007a; 연합뉴스, 2006). 그렇다면 단순히 성형수술 의도를 가지는 여성들과 실제로 성형수술을 경험하는 여성들 간에는 어떤 심리사회적 특성의 차이가 있는 것일까? 성형수술 의도와 경험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임인숙(2004)의 연구에서 외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성형수술 의향이 있는 집단이나 성형수술을 경험한 집단 간에 유사하게 높은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성교제에서 실제로 손해를 보았거나 희망직업을 가지는데 있어서 어려움에 대한 경험은 성형수술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단순히 성형수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과 실제로 성형수술을 경험하는 것은 서로 다른 심리적 경험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많은 여성들이 성형수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성형수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 병원에 가서 성형수술을 하기까지는 또 다른 심리사회적 변인들이 개입될 가능

성이 크다.

또한, 외모 및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은 극단적이고 과도한 형태로 나타남으로써 여성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실제로 성형수술이 실패한 것을 비판하여 자살을 한 사례가 있었으며(연합뉴스, 2009), 선풍기 아줌마의 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형수술 중독에 빠져 성형수술에 대한 극심한 부작용을 경험하는 예들을 볼 수 있다(신용환, 박진홍, 김태현, 2004). 이와 같은 극단적인 예들은 성형수술 이후에도 수술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외모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경험적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성형수술 이후 효과는 개인차가 있었다. 즉, 성형수술 이후 성형수술 결과에 대해 만족하고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를 보인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성형수술 이후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Maltz, 1981; Sarwer, Wadden, Pertschuk, & Whitaker, 1998). 특히 성형수술 이후 오히려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성형중독 위험이 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성형수술 이후 만족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성형수술 중독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성형수술을 경험하는 집단과 경험하지 않는 집단 간에, 그리고 성형수술 이후에도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하는 집단과 만족하지 않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성형수술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성형수술 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즉, 외모를 중시하는 TV나 잡지와 같은 미디

어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가 그리고 그러한 영향을 얼마나 내면화하여 실제 자신의 신체와 비교하는가에 따라 성형의도가 달라졌다(손은정, 2007a; 윤종희, 성수광, 진기남, 2006; Harrison, 2003; Swami et al., 2008). 또한, 자아존중감이나 완벽주의와 같은 성격적 특성과 성형의도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으며(손은정, 양난미, 2009; 지경환, 이상익, 2001; 차영란, 김기범, 2006; Sherry, Hewitt, Lee-Baggle, Flett, & Besser, 2004; Swami et al., 2008), 어린 시절 놀림 받은 경험 등 경험적 특성 역시 성형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은정, 2008a; 임인숙, 2004). 마지막으로 신체감시나 신체불만족과 같은 신체상은 여러 연구들에서 성형의도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은정, 양난미, 2009; 차영란, 김기범, 2006; Swami et al., 2008).

그러나 선행 연구들에서는 성형의도와 관련되어 연구되어온 성격적, 사회문화적, 경험적 차원, 그리고 신체상 차원에 있어서 성형수술 경험 유무와 성형수술 만족 여부에 따른 차이는 밝히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성형의도와 연관된 변인으로 연구되어져 온 심리사회적 특성들에 있어서 성형수술 경험 유무에 따라 그리고 성형수술 만족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성형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과 성형수술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성형수술 이후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성형수술 중독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려고 하는 성형수술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격적 차원: 자아존중감, 완벽주의

성형수술과 연관된 성격적 차원으로서 자아존중감은 성형수술 의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차영란, 김기범, 2006; 최백화, 2002).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형수술 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형수술을 경험한 집단은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집단보다 외모와 관련된 자아존중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imis, Verhulst, & Koot, 2001). 성형수술 이후에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성형수술 이후 자아존중감이 높아진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자아존중감이 더 낮아진 사람들도 있었다(Maltz, 1981). 자아존중감과 성형수술 의도간의 연구들을 통해,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성형수술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낮았고 실제로 성형수술을 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며, 성형수술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성형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 낮아질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격적 요인 중 완벽주의는 성형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Sherry 등(2004)은 자기지향적 완벽주의(self-oriented perfectionism,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자기 지시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other-oriented perfectionism, 다른 사람에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부과하는 성향),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타인이 자신에게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성향)와 성형의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연구 결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만이 성형의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또한

손은정과 양난미(2009)의 연구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사회비교와 신체왜곡의 매개를 통해 성형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수술을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 간에 완벽주의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Sherry 등(2007)의 연구결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에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즉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많을수록 성형의도가 높아지며 실제 성형수술을 경험하는 정도도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사회문화적 차원: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비교

성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는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적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외모를 중시하는 대중매체를 더 많이 접할수록,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압력에 더 많이 더 노출될수록 신체불만족과 성형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우형진, 2008; 윤종희, 성수광, 진기남, 2006; Harrison, 2003; Swami et al., 2008). 그러나, 실제로는 TV나 잡지와 같은 매체를 직접 접하는 정도보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정도(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value)가 신체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밝혀졌다. Stice, Schupack-Neuberg, Shaw 그리고 Stein(1994)의 연구에서는 매체에 노출된 정도보다 신체불만족과 더 큰 연관이 있었다. Cusumano와

Thompson(1997)은 마른 몸매를 보여주는 대중매체를 접한 정도,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인식한 정도, 그리고 사회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한 정도의 세 가지 변인과 신체불만족 간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 다른 두 가지 변인들보다 사회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정도가 클수록 신체불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와 성형의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는 일관되게 성형의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성형수술을 경험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형수술 동기에 대해 질적 연구를 실시한 김수연, 이해영, 그리고 고애란(2010)의 연구에서 사회의 이상적 신체이미지에 대한 내면화를 통해서 성형동기를 가지게 되었음이 밝혀졌으며,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Henderson-King와 Brooks(2009)의 연구에서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는 성형의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그 외에도 손은정(2007a)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는 신체상의 매개를 통해 성형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경향으로 인해 신체불만족과 함께 성형의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성형의도와 관련하여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연구되어진 또 다른 변인으로 신체비교(body comparison)를 들 수 있다. 신체비교는 원래 Festinger(1954)의 사회 비교 이론에서 비롯되었다. 사회 비교 이론에 의하면, 대중매체를 통해서나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매력적인 사람을 보면, 자신과 그 사람을 비교하게 되며,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클수록 매력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게 되어 이로 인해 신체불만족이 더 높아지며, 결국 성형의도도 더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행 연구들에서 자신의 신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신체비교는 신체불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Bessenoff, 2006; Dittmar & Howard, 2004; Tiggemann & McGill, 2004), 신체불만족의 매개를 통해 성형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은정, 2008a). 또한, Nabi(2009)의 연구에서도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은 성형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을 통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많을수록 자신의 외모에 대한 신체불만족이 높아지며 성형의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경험적 차원: 신체적 놀림을 당한 경험에 대한 지각

이전에 자신의 신체로 인해 놀림 받은 경험을 어느 정도로 지각하는가도 성형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져 왔다. 아동, 청소년 및 성인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 또래에게 놀림 받은 경험은 신체불만족을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조영미, 2005; Akan & Grilo, 1995; Grilo, Wilfley, Brownell, & Rodin, 1994), 신체에 대해 놀림을 받은 경험에 대한 지각은 성형 의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임인숙, 2004; 손은정, 2007a). 또한, Rosenberger, Henderson, Bell, 그리고 Grilo(2007)의 연구에서 성형 수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체적 놀림을 당한 경험에 대한 지각은 성형 수술을 하게 되는 중요한 유발 요인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자신의 신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놀림 받은 경

험은 신체상과 성형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체상 차원: 신체감시, 신체불만족

마지막으로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여러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성형의도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김윤, 2006; 손은정, 2007a; 손은정, 2008a; 차영란, 김기범 2006; Swami et al., 2008). Sarwer 등(1998)은 신체상과 성형 수술 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통합적 모델에서는 신체상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신체에 대한 지향성(orientation)과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체에 대한 지향성이란 자신의 신체에 대해 얼마나 주의와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전 연구들에서 주로 ‘신체감시(body surveillance)’라는 척도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신체감시는 성형의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은정, 2008a). 두 번째 요인으로 제시한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외모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성형의도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밝혀졌다(김윤, 2006; 손은정, 2007a; 손은정, 2008a; 차영란, 김기범 2006; Magee, 2010; Swami et al., 2008). 즉, 자신의 외모나 신체에 대해 불만족할수록 성형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이와 같이 성격적 차원의 자아존중감과 완벽주의, 사회문화적 차원의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와 신체비교, 경험적 차원의 신체적

놀림을 당한 경험에 대한 지각, 그리고 신체상 차원의 신체감시와 신체불만족은 성형의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들로 연구되어져 왔지만, 자아존중감이나 완벽주의와 같은 성격적 특성을 제외하고는 성형수술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를 검토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성형수술 경험이 있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 간에 이러한 변인들에서의 차이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지 못하였다. 성형수술 의도를 가지는 것과 실제로 성형수술을 경험하는 것은 서로 다른 심리사회적 요인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임인숙, 2004) 성형수술 경험 여부에 따라 각 변인들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성형수술 만족여부는 계속해서 성형수술을 시도하는 성형중독 위험 정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성형수술 만족여부에 따른 각 요인들의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에서는 성형수술 결과에 대한 만족여부에 따라 위의 요인들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살펴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형수술 경험과 성형수술에 대한 만족 여부에 따라 성격적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 경험적 차원, 신체상 차원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각 집단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형수술 의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변인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성형수술 경험 및 성형수술 만족 여부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에 네 가지 차원(성격적 차원, 경험적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 신체상 차원)에서 차이가 있는가? 두 번째, 성형수술 경험 및 성형수술 만족여부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에 성형의도와 심리

사회적 변인들 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성형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손은정, 2007a; 윤종희, 성수광, 진기남, 2006; 우형진, 2008; 임인숙, 2004; 차영란, 김기범, 2006; Henderson-King & Brooks, 2009; Nabi, 2009; Sherry, Hewitt, Flett, & Lee-Baggley, 2007). 이는 여대생들은 다른 연령대의 여성들보다 외모에 대해 가장 민감하고 관심을 많이 두는 시기이며(Tiggemann, 2004; Tiggemann & Lynch, 2001), 지나친 체중 조절로 인한 섭식장애와 같은 심리적 병리 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Cashel, Cunningham, Landeros, Cokley & Muhammad, 2003; Striegel-Moore & Bulik,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외모에 가장 민감하고 관심을 많이 두면서 동시에 이로 인한 심리적 병리 현상도 가장 많이 나타내는 여대생들의 성형행동을 연구하고자, 서울 및 경북 소재 대학교 여학생들에게 심리학과 관련된 수업 시간 중 질문지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총 312명의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309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여자들의 나이는 18세에서 27세까지 평균 20.62세(표준편차 1.74)이었다. 총 309명 중 성형수술을 한 사람은 80명(25.9%),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은 229명(74.1%)이었으며, 성형수술을 한 사람들 중 성형수술 결과에 대해 만족한 사람들은 총 80명 중 54명(67.5%), 불만족한 사람들은 26명(32.5%)이었다. 성형수술

부위를 살펴보면 눈 수술만 한 사람이 60명 (75%), 눈과 코 수술을 같이 한 사람이 8명 (10%), 코 수술만 한 사람이 4명(5%), 치아에 대한 성형을 한 사람이 3명(3.8%), 눈과 코와 치아에 대한 성형 수술을 한 사람이 1명 (1.3%), 눈과 코와 피부에 대한 성형수술을 한 사람이 1명(1.3%), 피부에 대해 성형을 한 사람이 1명(1.3%), 가슴성형이 1명(1.3%)으로 나타났다.

도 구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Rosenberg (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를 최정아(1996)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까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10점부터 40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가 좋은 장점(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또는 ‘대체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를 들 수 있다. 최정아(1996)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7로 나타났다.

완벽주의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Hewitt와 Flett (1991)가 개발한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를 사용하였다. Hewitt와 Flett(1991)의 완벽주의 척도는 완벽주의 성향의 개인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의 양쪽을 모두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self oriented perfectionism), 타인지

향적 완벽주의(other oriented perfectionism),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의 3가지 하위요인,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7점인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경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Hewitt와 Flett(1991)가 요인 분석한 결과 각 15개 문항씩 3개 요인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각 하위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86, .82, .87이었다.

이 척도를 한국 대학생과 일반인 400명을 대상으로 재타당화한 한기연의 연구(1994)에서도 Hewitt와 Flett(1991)의 결과와 유사하게 3개 하위요인이 나타났으며 각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84, .73, .7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하위요인 중에서 성형수술 행동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던(Sherry et al., 2004; Sherry et al., 2007)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요인 15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내적 합치도는 .84였다.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다른 이상적인 체형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Cusumano와 Thompson (1997)이 개발하였고 문정신(2002)이 번안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재화 척도(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Scale; SATAS)를 사용하였다.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부터 ‘매우 그렇다’ 5까지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이 척도의 하위척도는 자각과 내면화이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내면화에 해당하는 9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9점부터 4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문화적 가치를 더 많이 내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항의 예로

는, ‘나는 나의 몸이 TV나 영화에 나오는 여
자들과 같았으면 좋겠다.’, 또는 ‘나는 몸매
가 좋은 여자들이 나오는 뮤직 비디오를 보
면, 나도 저런 몸매를 가졌으면 하고 바란
다.’를 들 수 있다. 내적 합치도가 Cusumano
와 Thompson(1997)과 문정신(2002)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7로 나타났다.

신체 비교

신체비교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Thompson,
Heinberg, 그리고 Tantleff(1991)가 개발하고 손
은정(2008b)이 번안한 신체 외모에 대한 비교
척도(Physical Appearance Comparison Scale; PACS)
5문항과 Tiggemann과 McGill(2004)가 개발하고
손은정(2008a)이 번안한 구체적인 신체 특성에
대한 비교 척도(Specific Attributes Comparison
Scale; SACS) 5문항을 하나의 척도로 만들어 함
께 사용하였다.

Thompson 등(1991)의 신체 외모에 대한 비교
척도(PACS)는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신체
외모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정도를 측정하
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나는 파티나 다른 사교 모임에서 나의 신체
적 외모와 다른 사람의 신체적 외모를 비교한
다.’, 또는 ‘나는 종종 사람들을 만날 때 나의
몸매를 다른 사람의 몸매와 비교한다.’를 들
수 있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항상 그렇다(5)의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
수록 비교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Thompson 등(1991)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78이었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2이었다.
Tiggemann과 McGill(2004)의 구체적인 신체 특
성에 대한 비교 척도(SACS)는 팔뚝, 허벅지 등
의 구체적인 신체부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

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문항의 예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나의 허벅지의 둘레를 동료의 허벅지와
비교한다.’, 또는 ‘나는 다른 여자들의 엉덩이
크기와 내 엉덩이 크기를 비교한다.’ 등이 있
다. 이 척도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항상 그렇다(5)의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비교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Tiggemann과 McGill(2004)
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1이었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한 전체 신체비교 척도의 내적 합
치도는 .84이었다.

신체적 놀림을 당한 경험에 대한 지각

신체적 놀림을 당한 경험에 대한 지각을 측
정하기 위해서 Oliver과 Thelen(1996)의 척도
중 신체 크기와 형태에 대한 놀림 항목만을
사용한 조영미(2005)의 척도를 수정한 손은정
(2008a)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조영미(2005)의
연구에서는 친한 남자친구/ 친하지 않은 남자
친구/ 친한 여자친구/ 친하지 않은 여자친구의
놀림으로 구분하여 또래로부터 놀림 받은 경
험을 측정하였으나, 손은정(2008a)에서는 또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예: 부모, 다른 어른
들)의 놀림도 함께 포함시키기 위해 문항을
수정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사람들은 당신의
신체의 크기나 신체의 모양을 가지고 당신을
놀렸다’를 들 수 있다. 이 척도는 총 8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얼마나 놀림을 받았는
지에 대해 ‘전혀 놀림을 받지 않았다(1)’에서부터
‘매우 자주 놀림을 받았다(5)’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
로부터 놀림 받은 경험이 더 많음을 나타낸다.
조영미(2005)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7
4~.94이었고, 손은정(2008a)과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1이었다.

신체감시

신체감시를 측정하기 위해서 McKinley와 Hyde(1996)의 대상화된 신체 의식 척도(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s)의 하위 척도 중 '신체감시(body surveillance)'를 손은정(2007b)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7까지 7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의 범위는 8점부터 42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가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 관찰하고 신경을 쓰는 경향이 많은 것을 나타낸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종종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나에게 잘 어울리는지 걱정 한다', 또는 '하루 동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를 들 수 있다. McKinley와 Hyde(1996)의 연구에서는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79로 나타났으며, 손은정(2007b)에서는 내적 합치도가 .7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가 .81로 나타났다.

신체불만족

신체에 대한 왜곡을 측정하기 위해서 Littleton, Axon과 Cynthia(2001)가 개발하였고 문정신(2002)이 번안한 간편 신체 왜곡 질문지(The Brief Body Dysmorphic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에서 '언제나 그렇다'의 5까지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의 범위는 20점에서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에 대한 왜곡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신체 왜곡은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너무 커서 자신의 신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

고 변형,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을 말한다. 신체 왜곡이 심한 경우에는 자신이 못 생기고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매우 커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일그러졌다고도 인식하며, 밖에 나가는 것도 꺼리게 된다. 신체 왜곡 증상에 대한 문항의 예로는 '나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싫다', 또는 '나는 나의 외모 때문에 집을 나서는 것이 거부하다'를 들 수 있다. Littleton 등(2001)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1이었고, 문정신(2002)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성형의도

성형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경란(2002)이 개발한 성형태도 척도 중 16문항을 사용하였다. 성형태도 척도는 성형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음상태를 측정하는 20문항으로 하위요인으로는 성형수술한 것을 눈치 채지 못하거나 수술 전 모습을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성형비밀 4문항, 성형수술을 통한 외모향상에 가치를 두는 성형가치 4문항,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외모에 대한 심리적 압력 때문에 성형하려고 하는 성형동조 5문항, 적극적으로 비용을 마련하고 지불하려고 하는 성형비용지불 4문항, 위험하더라도 성형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성형위험수용 3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인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경란(2002)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성형비밀 .63, 성형가치 .75, 성형동조 .84, 성형비용지불 .75, 성형위험수용 .79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낮은 성형비밀 3문항을 제외하고 4개 척도, 16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전체 내적 합치도는 .92 였다.

성형수술 경험 여부 및 성형수술 만족 여부

성형수술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성형수술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네’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게 하였다. 성형수술 만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성형수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에게 ‘성형수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고, ‘매우 불만족한다’는 1점부터 ‘매우 만족한다’는 5점까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성형수술 만족 여부에 따라 집단을 나눌 때는 ‘만족한다’나 ‘매우 만족한다’에 표시한 사람은 만족하는 집단으로, 나머지는 불만족하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방법

(a) 성형수술 경험 여부 및 성형수술 만족 여부에 대한 집단구분에 따라 각 변인들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b) 성형수술을 경험한 집단과 경험

하지 않은 집단, 그리고 성형수술 결과를 만족하는 집단과 만족하지 못하는 집단을 가장 잘 구분해 주는 변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c) 성형수술 경험 여부와 성형수술 만족 여부에 따라 성형의도와 심리사회적 특성 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 집단별로 성형의도와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결 과

성형수술 경험 및 성형수술 만족 여부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의 차이

먼저 성형수술 경험 여부에 따라 주요 변인들에서 평균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성형수술을 경험한 80명과 229명 중 무선적으로 선정된 성형수술을 경험하지 않은 81명의 두 집단 간에 주요 변인들에서 평균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고, 모든 변인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표 1. 성형수술 만족 여부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에서의 차이

차원	변인	성형수술 만족		
		만족(N=54)	불만족(N=26)	t
성격적 차원	자아존중감	31.39 (3.24)	28.73 (4.22)	-3.11**
	완벽주의	51.42 (10.64)	60.44 (11.72)	3.38**
사회문화적 차원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28.91 (6.57)	31.69 (5.99)	1.83
	신체비교	30.63 (7.09)	34.08 (7.28)	2.00
경험적 차원	신체적 놀림을 당한 경험에 대한 지각	12.51 (3.41)	13.04 (5.11)	.55
신체상 차원	신체감시	38.04 (7.07)	38.61 (6.78)	-.34
	신체왜곡	49.15 (10.75)	54.58 (13.03)	1.96

주. 평균(표준편차), *p < .05, **p < .01

았다.

두 번째로 성형수술 만족 여부에 따라 주요 변인들에서 평균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성격적 차원인 자아존중감($t_{(1,78)}=-3.11, p<.01$)과 완벽주의($t_{(1, 78)}=3.38, p<.01$)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형수술 결과에 만족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으며 완벽주의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수술 만족 여부를 설명해 주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기여도

먼저 성형수술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을 가장 잘 구분해 주는 변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판별함수가 유의미하지 않았다($\chi^2= 4.42$ ($df=7$), $p>.05$).

두 번째로 성형수술 결과를 만족한 집단과 만족하지 않은 집단 간을 가장 잘 구분해 주는 변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한 개의 유의미한 판별함수가 산출되었으며($\chi^2=17.55$ ($df=7$), $p<$

.05), 정준상관계수는 .47로서 판별함수의 설명력은 21%로 나타났다. 성형수술을 만족 여부에 따라 집단을 분류할 수 있는 적중률은 76.3%였으며, 성형수술 결과를 만족하는 집단은 .75, 성형수술 결과를 만족하지 못하는 집단은 -.37의 그룹중심점을 나타내었다. 각각의 주요변인들이 종속변인인 성형수술 만족여부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상대적 기여도를 검토해 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형수술 만족여부를 가장 잘 판별해 주는 예측변인은 성격적 차원의 완벽주의와 자존감이었으며, 그 다음 순으로 신체왜곡, 신체비교,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로 나타났다.

성형의도와 심리사회적 특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성형수술 여부와 성형수술 만족 집단 간의 차이

성형수술 여부에 따른 차이

성형의도와 주요변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성형수술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성형수술을 경험한 집단에서는 성형의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변인으로 사회

표 2. 심리사회적 특성을 통한 성형수술 만족 여부의 판별

차원	변인	표준판별화계수
성격적 차원	자아존중감	-.61
	완벽주의	.74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39
사회문화적 차원	신체비교	.42
	경험적 차원	신체적 놀림을 당한 경험에 대한 지각
신체상 차원	신체감시	-.05
	신체왜곡	.43

표 3. 성형수술 여부에 따른 성형의도와 심리사회적 특성 간의 상관관계

변인	성형수술 경험	1	2	3	4	5	6	7
성형의도(PI)	유(N=80)	-.13	.05	.53**	.42**	.31**	.18	.54**
	무(N=81)	-.10	.00	.37**	.31**	.15	.33**	.51**

주. 1 = 자아존중감, 2 =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3 =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4 = 신체비교, 5 = 신체적 놀림을 당한 경험에 대한 지각, 6 = 신체감시, 7 = 신체불만족. ** $p < .01$

표 4. 성형수술 만족에 따른 성형의도와 심리사회적 특성 간의 상관관계

변인	성형수술 만족 여부	1	2	3	4	5	6	7
성형의도(PI)	만족 (N=54)	-.09	.05	.52**	.39**	.10	.29	.62**
	불만족(N=26)	-.08	-.09	.53**	.43*	.56**	.13	.38**

주. 1 = 자아존중감, 2 =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3 =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4 = 신체비교, 5 = 신체적 놀림을 당한 경험에 대한 지각, 6 = 신체감시, 7 = 신체불만족. * $p < .05$, ** $p < .01$

문화적 가치의 내면화($r=.53$), 신체비교($r=.42$), 신체적 놀림을 당한 경험에 대한 지각($r=.31$), 신체불만족($r=.54$)으로 나타났는데 반해, 성형수술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r=.37$), 신체비교($r=.31$), 신체감시($r=.33$), 신체불만족($r=.51$)이 성형의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비교, 신체불만족은 두 집단 모두에서 성형의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신체적 놀림을 당한 경험에 대한 지각은 성형수술을 한 집단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반해, 신체감시는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집단만 유의미하였다.

성형의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변인으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r=.52$), 신체비교($r=.39$), 신체불만족($r=.62$)으로 나타났는데 반해, 성형수술 결과에 불만족한 집단에서는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r=.53$), 신체비교($r=.43$), 신체적 놀림을 당한 경험에 대한 지각($r=.56$), 신체불만족($r=.38$)이 성형의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비교, 신체불만족은 두 집단 모두에서 성형의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신체적 놀림을 당한 경험에 대한 지각은 성형수술 결과에 불만족한 집단에서만 유의미하였다.

성형수술 만족에 따른 차이

성형의도와 주요변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성형수술 만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성형수술 결과에 만족한 집단에서는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형수술 경험 여부와 성형수술 만족 여부에 따라 심리사회적 특성에 어

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성격적 차원의 자아존중감과 완벽주의, 사회문화적 차원의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와 신체비교, 경험적 차원의 신체적 놀림을 당한 경험에 대한 지각, 신체상 차원의 신체감시와 신체불만족에서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첫 번째로 성형수술 경험 여부에 따른 주요 변인들에서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Simis 등(2001)의 연구에서 성형수술을 경험한 집단이 성형수술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낮았던 결과나, Sherry 등(2007)의 연구에서 성형수술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더 높게 나타났던 서구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들의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이 폭넓게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성형수술을 경험한 집단은 경험하지 않은 집단과 크게 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이 보편화되었고 일반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외국에 비해 외모에 대한 관심과 외모관리 행동의 비율도 매우 높은 편이며(김완석, 김정식, 2007; Wardle, Haase, & Steptoe, 2006), 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성형기술도 급격하게 발달하여 성형강국으로서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성형수술을 받으러 오는 국가가 되었다(조선일보, 2010).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성형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심리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성형수술을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 간에 차이를

나타내는 다른 변인들이 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성형의도와 관련하여 연구되어온 변인들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다루어진 성격적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 경험적 차원, 그리고 신체상 차원은 성형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한 면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임인숙(2004)의 연구에서 자신의 외모로 인해서 이성 관계나 구직에서 피해를 받은 경험이 성형수술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외모로 인한 차별경험과 같이 성형수술 경험 여부를 구분해 줄 만한 다른 변인들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연구결과로서 성형수술 만족 여부에 따라 성격적 차원인 자아존중감과 완벽주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형수술 만족 여부에 따른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은 완벽주의, 자아존중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형수술 이후 성형수술 결과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심리적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던 이전 연구(Maltz, 1981; Sarwer et al., 1998)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특히 선행연구들에서는 성형수술 경험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고 성형수술 만족 여부에 따른 차이는 살펴보지 못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 성형수술 결과에 대해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에 따라 성격적 차원에 차이가 있음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의 의미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 번째로 성형수술 경험 여부보다는 성형수술 만족 여부가 보다 분명한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성형수술 의도와 관계가 있었던 심리사회

적 특성의 변인들을 동일하게 성형수술 만족 여부에 적용시켰을 때, 성형수술 경험여부와는 달리 성형수술 만족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성형수술이 보편화된 우리나라에서는 성형수술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보다는 성형수술을 하고 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심리적 특성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 성형수술 경험 여부보다는 성형수술 만족 여부에 초점을 두고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다른 변인들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위의 결과를 통해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 특성들 중 특히 성격적 차원에서 차이가 나타났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성형수술 의도에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던 사회문화적 영향력(김수연 등, 2010; 손은정, 2008a; Bessenoff, 2006; Dittmar & Howard, 2004; Henderson-King & Brooks, 2009; Nabi, 2009; Tiggemann & McGill, 2004)이나 신체상(김윤, 2006; 손은정, 2007a; 차영관, 김기범 2006; Magee, 2010; Swami et al., 2008)과 같은 요인들에 있어서 성형수술 만족 여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성형수술 의도를 설명해주는 변인과 성형수술 만족을 설명해주는 변인이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성형수술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추후연구에서는 성형수술 의도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성격적 차원에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 결과는 성형수술 중독 위험이 있는 여성들에게 예방 및 치료적 접근을 시도할 때 무엇보다 성격적 차원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다

른 사람들이 완벽한 기준을 기대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에 대해 그 기준을 완화시켜 지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상적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현재 상태에 대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연구결과로서 성형의도와 심리사회적 특성들 간의 관계에서 성형수술 경험 여부에 따라, 그리고 성형수술 만족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신체적 놀림을 당한 경험에 대한 지각과 성형의도 간의 관계는 성형수술을 경험한 집단에서만 유의미했고, 신체감시와 성형의도 간의 관계는 성형수술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서만 유의미했다. 또한 신체적 놀림을 당한 경험에 대한 지각은 성형수술 결과를 불만족한 집단에서만 유의미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신체적 놀림을 당한 경험에 대한 지각이나 신체감시가 집단을 구분해 주지는 못했지만, 각 집단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형의도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성형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성형의도를 더 많이 가지게 되지만, 성형수술을 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주의집중과 관찰이 성형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높이는데 별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성형을 경험한 여성들, 특히 그 중에서도 성형수술 결과에 대해 불만족하는 여성들에게는 예전에 자신의 신체로 인해 놀림 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성형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아졌지만, 성형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들이나 성형수술 결과를 만족한 여성들에게는 과거에 놀림 받은 경험과 성형수술을 하고자 하는 의향과는 관계가 거의 없다는 것이

다. 이 결과에서 신체적 놀림을 당한 경험에 대한 지각은 성형수술 경험 여부와 성형수술 만족 여부에 따라 모두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특히 주목할 만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임인숙(2004)의 연구에서도 외모로 인한 차별 경험이 성형수술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평균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형수술을 시도하는 여성들이 성형수술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동기를 제공해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형수술 경험 여부에 따른 특성이나 성형수술 만족 여부에 따른 차이에 대한 추후 연구에서는 외모로 인한 차별 경험이나 놀림 받은 경험 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전 연구들이 주로 성형수술 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성형수술 경험여부나 성형수술 만족여부에 따른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성형수술 경험여부보다는 성형수술 만족여부가 심리사회적 특성에 있어서 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여러 가지 차원들 중 특히 성격적 차원 및 경험적 차원과 관련하여 추후 연구를 진행시켜 가야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성형수술 이후에도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성형중독에 빠지거나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지나치게 높은 기준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완벽주의와 낮은 자아존중감이라는 것을 밝혔으며, 이는 앞으로 여성의 정신건강의 증진을 돕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개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특히 본 연구는 외모에 대해 가장 민감하고 관심이 많으며 이로 인한 심리적 병리현상도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는 여대생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Cashel et al., 2003; Striegel-Moore & Bulik, 2007; Tiggemann, 2004; Tiggemann & Lynch, 2001). 여대생들은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나 이성교제에 있어서 남학생들보다 더 크게 외모로 인해 자신의 능력이나 매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이 시기 외모로 인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임인숙, 2004; Fredrickson & Rogerts, 1997). 따라서 여대생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외모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여대생의 경우,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대해 과도하게 높게 지각하는 성격적 특징이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자기비하적 평가에 대해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성형수술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형수술을 경험한 참여자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참여자들의 수를 확보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 수의 한계로 인해 각 집단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형수술 의도와 다른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 상관관계 분석을 하는데 그쳤는데, 추후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참여자 수를 확보하여, 본 연구에서 다른 성형의도와 다른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적 모델에서 있어서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구조방정식과 같은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으며 외모로 인한 심리적 병리현상을 가장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

진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특히 서울과 경북 지역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 결과를 다른 지역이나 다른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연령대의 성인 여성들에게 있어서 성형수술 경험여부나 성형수술 만족여부에 따라 어떠한 심리사회적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수연, 이해영, 고애란 (2010). 가슴 성형 경험자의 성형동기와 성형 후 평가: 이상적 신체이미지 내면화를 통한 의복 소비행동의 변화. *한국의류학회지*, 34(5), 740-753.
- 김완석, 김정식 (2007). 동아시아 여대생들의 신체가치관과 신체존중감: 한국, 중국, 일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4), 113-134.
- 김윤 (2006). 사회문화적 압력,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 및 대상화된 신체의식이 신체만족과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문정신 (2002). 공적 자기의식 및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와 신체상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은정 (2007a). 공적 자기의식,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및 신체상에 대한 태도가 성형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1), 63-81.
- 손은정 (2007b). 공적 자기의식, 신체에 대한 감시, 신체에 대한 수치심이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35-750.
- 손은정 (2008a). 신체놀림에 대한 지각, 신체비교, 신체에 대한 감시, 신체에 대한 왜곡이 성형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2), 121-136.
- 손은정 (2008b). 여대생의 자아존중감, 신체비교, 마른 이상적인 체형의 내면화, 신체불만족이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885-901.
- 손은정, 양난미 (2009).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성형의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비교와 신체왜곡의 매개 역할. *상담학연구*, 10(2), 1245-1258.
- 신용환, 박진홍, 김태현 (연출) (2004).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서울: SBS TV.
- 엄현신 (2007). 얼굴에 대한 미의식과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인식.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연합뉴스 (2006). 2006년 11월 15일자.
- 연합뉴스 (2009). 2009년 1월 28일자.
- 우형진 (2008).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이 시청자의 성형수술 행위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계획행동이론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8(4), 480-513.
- 유창조, 정혜은 (2002). 소비자의 아름다움 추구행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남성의 치장과 여성의 화장, 성형 및 피트니스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3(1), 211-232.
- 윤종희, 성수광, 진기남 (2006). 미디어 노출이 성형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2), 177-182.
- 임인숙 (2004). 외모차별 사회의 성형 경험과 의향. *한국여성학*, 20(1), 95-122.
- 전경란 (2002). 여성의 욕구, 자아존중감과 성형

- 및 의복태도의 관련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조선일보 (2010). 2010년 4월 12일자.
- 조영미 (2005). 아동 및 청소년기의 신체상.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경환, 이상익 (2001). 미용성형수술 환자의 심리적 특성과 미용수술이 이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40(4), 559-568.
- 차영란, 김기범 (2006). 여성의 화장에 대한 태도와 성형 의도에 대한 자기존중감과 신체 존중감의 역할 분석. 한국심리학회 논문집.
- 최백화 (2002).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정아 (1996). 자의식과 자존감이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기연 (1994).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 Akan, G., & Grilo, C. (1995). Sociocultural influences on eating attitudes and behaviors, body image,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A comparison of African-American, Asian-American, and Caucasian college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8(2), 181-187.
- Bessenoff, G. R. (2006). Can the media affect us? Social comparison, self-discrepancy, and the thin ideal.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0(3), 239-251.
- Cashel, M. L., Cunningham, D., Landeros, C., Cokley, K. O., & Muhammad, G. (2003). Sociocultural attitudes and symptoms of bulimia: Evaluating the SATAQ with diverse college group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3), 287-296.
- Cusumano, D. L., & Thompson, J. K. (1997). Body image and shape ideals in magazines: Exposure, awareness, and internalization. *Sex Roles*, 37(9), 701-721.
- Dittmar, H., & Howard, S. (2004). Thin-ideal internalization and social comparison tendency as moderators of media models' impact on women's body-focused anxiet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6), 768-791.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2), 117-140.
- Fredrickson, B. L., & Rogerts, T. (1997).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2), 173-206.
- Grilo, C., Wilfley, D., Brownell, K., & Rodin, J. (1994). Teasing, body image, and self-esteem in a clinical sample of obese women. *Addictive Behavior*, 19(4), 443-450.
- Harrison, K. (2003). Television viewers' ideal body proportions: The case of the curvaceously thin woman. *Sex Roles*, 48(5), 255-264.
- Henderson-King, D., & Brooks, K. D. (2009). Materialism, sociocultural appearance messages, and paternal attitudes predict college women's attitudes about cosmetic surger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3(1), 133-142.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470.

- Littleton, H. L., Axon, D., & Cynthia, L. S. (2001). *Development of a self-report measure of body dysmorphic symptom: The brief body dysmorphic questionnaire*. Paper presented to the meeting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an Francisco, CA.
- Magee, L. (2010). *Predicting 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The effects of body image, appearance orientation, social anxiety,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Unpublished Dissertation, Pennsylvania: Temple University.
- Maltz, M. (1981). *Psycho-cybernetics*. Harper Collins: New York.
- McKinley, N. M., & Hyde, J. S. (1996).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2), 181-215.
- Nabi, R. L. (2009). Cosmetic surgery makeover programs and intentions to undergo cosmetic enhancements: A consideration of three models of media effect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5(1), 1-27.
- Oliver, K. K., & Thelen, M. H. (1996). Children's perceptions of peer influence on eating concerns. *Behavior Therapy*, 27(1), 25-36.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 Rosenberger, P. H., Henderson, K. E., Bell, R. L. & Grilo, C. M. (2007). Association of weight-based teasing history and current eating disorder features and psychological function in bariatric surgery patients. *Obesity surgery*, 17(4), 470-477.
- Sarwer, D. B., Wadden, T. A., Pertschuk, M. J. & Whitaker, L. A. (1998). The psychology of cosmetic surgery: A review and reconceptualizat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8(1), 1-22.
- Sherry, S. B., Hewitt, P. L., Flett, G. L. & Lee-Baggley, D. L. (2007). Perfectionism and undergoing cosmetic surgery. *European Journal of Plastic Surgery*, 29(8), 349-350.
- Sherry, S. B., Hewitt, P. L., Lee-Baggley, D. L., Flett, G. L., & Besser, A. (2004). Perfectionism and Thoughts about having cosmetic surgery performed. *Journal of Applied Biobehavioral Research*, 9(4), 244-257.
- Simis, K. J., Verhulst, F. C., & Koot, H. M. (2001). Body image, psychosocial functioning, and personality: How different are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applying for plastic surger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2(5) 669-678.
- Stice, E., Schupak-Neuberg, E., Shaw, H. E., & Stein, R. I. (1994). Relation of media exposure to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An examination of mediating mechanis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4), 836-840.
- Striegel-Moore, R. H., & Bulik, C. M. (2007). Risk factors for eating disorders. *American Psychologist*, 62(3), 181-198.
- Swami, V., Arteché, A., Chamorro-Premuzic, T., Furnham, A., Stieger, S., Haubner, T. & Voracek, M. (2008). Looking good: factors affecting the likelihood of having cosmetic surgery. *European Journal of Plastic Surgery*, 30(5), 211-218.
- Thompson, J. K., Heinberg, L. J., & Tantleff, S. (1991). The Physical Appearance Comparison

- Scale (PACS). *Behavior Therapist*, 14, 174.
- Tiggemann, M., & McGill, B. (2004).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 in the effect of magazine advertisements on women's mood and body dis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1), 23-44.
- Tiggemann, M., & Lynch, J. E. (2001). Body image across life span in adult women: The role of self-objectific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7(2), 243-253.
- Wardle, J., Haase, AM., & Steptoe, A. (2006). Body image and weight control in young adults: international comparisons in university students from 22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 30(4), 644-651.
- 1 차원고접수 : 2011. 2. 7.
심사통과접수 : 2011. 3. 2.
최종원고접수 : 2011. 3. 17.

The Differences of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plastic surgery experience and satisfaction with the plastic surgery

Eunjung Son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of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plastic surgery experience and satisfaction with the plastic surgery. Specifically we examined the dissimilarities between groups on self-esteem and perfectionism as a personality dimension,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value and body comparison as a sociocultural dimension, perception of teased experience as a experiential dimension, and body surveillance and body dissatisfaction as a body image dimension.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the class in the University in Seoul and Kyungpook provinces and 309 women responded the questionnaires. We found the differences of self-esteem and perfectionism according to satisfaction with plastic surgery, and perfectionism is the most strongest predictor to group differences. Moreover,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perception of teasing experience and intention of plastic surgery were different according to plastic surgery experience and satisfaction with the plastic surgery. Implications for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were discussed.

Key words : plastic surgery, perfectionism, self-esteem, body dissatisfaction